

성주골프장 '사드 핵심장비' 전격 배치

발사대·X-밴드 레이더·요격미사일 등 조만간 정식 시험가동... 올해 안에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 구비 방침

주한 미군이 26일 오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경북 성주군 성주스카이힐 골프장에 전격 배치, 발사대와 레이더 등이 조만간 정식 시험가동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이날 "사드의 조속한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날 X-밴드 레이더(AN/TPY-2)발사대 6기·요격미사일 등 사드 체계 핵심 장비를 부지 안으로 반입해 배치했다.

'사드의 눈'으로 불리는 엑스밴드 레이더는 분해하지 않고 완성품으로 들여와 다른 체계와 조립 과정을 거치면 바로 운용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의 핵심 장비가 성주골프장에 전개됨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사드 장비들에 대한 시험 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 1개 포대는 크게 네 가지 장치로 이뤄져 있다. X-밴드 레이더(AN/TPY-2), 발사대(Launcher), 요격미사일(Interceptors), 발사통제장치(Fire Control) 등이다.

주한미군은 오산기지와 부산, 경북 철곡 왜관외의 캠프 캠퍼에 각각 분산 보관 중이던 사드 레이더와 차량형 발사대, 요격미사일을 동시에 반입했다.

앞서 전날 밤 장비반입 소식이 알려지면서 성주 주민들은 이를 막기 위해 부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 가운데 주민 5명이 경찰과 몸싸움 도중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경찰 500여명과 대치 끝에 사드 장비는 이날 오전 4시40분께 부지 안으로 반입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와 미군차량들이 26일 오전 경북 성주골프장으로 들어간 가운데 주민들과 종교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를 규탄하고 있다.

됐다.

다만 발전기 등 일부 포대 운용에 필요한 장비들은 감천 부근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대의 경우 6기가 기본 구성이다. 군 당국은 지난달 6일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들여와 경북 철곡 왜관에 보관중이던 발사대 27기와 부산을 통해 추가 반입한 발사대를 이날 안으로 들였다.

국방부는 이번 반입과 무관하게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남은 사드 배치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안에 사드 체계의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구비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은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를 경찰이 불법적으로 막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위, 예코시티 공립유치원 승인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342회 임시회에서 전주 송천동 예코시티 내 공립유치원인 '전주화정유치원' 설립을 승인했다.

이는 예코시티 주변지역 내 유아들의 학습권을 위해 공립유치원 설립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위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학부모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과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립유치원 설립에 긍정적인 검토를 해왔다.

화정유치원은 5,007㎡에 98억5,000여만원의 예산으로 특수학급 포함 10학급(183명) 규모로 202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병서 의원과 최인정 의원은 "수요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비전을 제시하며 설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재용 기자

문재인 후보 "우리 민주당 국방안보 역대 최강"

국방안보특보단 출정식... "창당 이래 가장 많은 지지선언... 국방 전문가 1000명 넘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천군만마 국방안보특보단 출정식을 갖고 '안보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무게를 실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 입구 계단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장군 및 국방안보 전문가 450여명과 함께 "이제 우리 민주당의 국방안보는 역대 최강"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안보최고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창당한 이래 이렇게 많은 장군과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지지선언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천군만마라는 말은 압도적 군사력을 뜻하는 말"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어 "중국 역사 소설 삼국지

에서 제가 좋아하는 장군 중 하나가 황충인데, 이제 1000여명의 황충과 함께 안보정권 창출에 나서고 있다고 말하겠다"며 "국방 전문가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하니 민주당이 확실히 책임지고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끊임없는 색깔론으로 안보를 허약하게 만든 가짜 안보세력"이라며 "이들은 끝없는 방산비리로 우리 안보에 구멍을 내온 파렴치한 세력으로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보를 제자리에 놓을 진짜 안보세력은 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라며 "가짜 안보를 진짜 안보로 바꿔야 한다. 우리가 나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후보의 연설이 끝난 뒤 '성소수자차별 반대무지개행동' 회원 서너명이 연단으로 뛰어올라 문 후보를 향해 "사과하라"고 항의하자 지리는 한 때 소란을 빚기도 했다. 그는 순간 당황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행사를 마무리 한 뒤 다음 일정을 위해 자리를 떠났다.

한편, 문 후보는 지난 25일 대선 후보 4차 TV토론 홍준표 후보의 동성애와 관련해서 던진 질문에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문 후보는 "동성애 차별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문 후보는 일부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사게 됐다.

/인재용 기자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전북 표심 잡기 안간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불법유세단'을 이끌고 26일 전북을 방문해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했다.

불법유세단은 불모지를 알리는 봄의 향기처럼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는 새봄같은 소식을 국민에게 전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를 포함해 초재선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불법유세단은 부안을 시작으로 김제, 익산, 완주, 전주 등을 순차적으로 찾아 지역민들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이번 유세에서는 김춘진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주, 안호영 공동선대위원장도 함께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화력전을 펼쳤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이 철저하게 검증하고 자신 있게 내세운 후보"라면서 "지역발전은 이룰 수 있도록 문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춘진 상임선대위원장은 "중양당 선대위에서 대규모로 지원유세를 한 적은 유례가 없었다"며 "유세단과 함께 후보의 정책을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한 많은 지지와 성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선 공동 선대위원장은 오는 28일 전북을 방문, 문재인 후보지지에 가세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이용호 의원, 임·순·남 재난안전 특교세 16억 확보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26일 남원시 '산동 부절사정교 재가설 사업', 순창군 '소교량(분통, 양림천, 화탄1) 재가설 사업', 임실군 '금암리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사업' 등 지역구 재난안전사업을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총 1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원의 '산동 부절사정교 재가설 사업'의 경우 4억원을 확보했다. 산동면 부절마을에 가설된 이 교량은 46년 전 새마을 사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차량이나 농기계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교량의 재가설 사업은 안전한 주거생활 및 영농활동을 위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순창은 '소교량(분통, 양림천, 화탄1) 재가설 사업'에 7억 원을 확보했다. 순창군 동계면, 팔덕면, 북흥면 일대의 이 소교량들은 교각, 교대의 세굴 및 철근노출, 부식, 노후 등으로 인한 구조적 불안정으로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곳이다. 재가설 사업 추진을 통한 재해예방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의 '금암리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사업'은 5억원을 확보했다. 지방하천(오수천)과 합류부에 위치한 저지대 침수지역 예방 사업으로 매년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인명 피해 및 재산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안철수, 사드 기습 배치에 "한미 합의 따라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6일 새벽 국방부가 성주골프장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강행한 데 대해 "사드 배치는 한미 간 합의에 의해 이행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춘천 명동거리 유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같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민과의 충돌도 있었다는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경영향평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는 국방부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시스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천라북도!

2017 MUJU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세계는 무주 태권도원으로 태권으로 하나되는 지구촌
One World, One Taekwondo at Taekwondown

2017 WTF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MUJU

2017. 6.24.(토)-30.(금)
전북 무주 태권도원

주최: 한국태권도진흥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북도, 무주군, 후원사: KTF, KFA, KPNP, KWB, KJBC, KJB, KJW, KJH, KJG, KJF, KJE, KJD, KJC, KJB, KJA, KJH, KJG, KJF, KJE, KJD, KJC, KJB, KJA